
담화표지 발달에 있어서 운율의 역할: '글쎄'의 경우를 중심으로

송인성(상명대)
이성하(한국외대)

목차


- 1 서론
- 2 '글쎄'의 문법화
- 3 '글쎄'의 담화 기능
- 4 이론적인 쟁점과 논의
- 5 결론



1 서론

연구 목적 및 의의

담화표지

- 
- 범언어적으로 실현, 담화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, 다기능성
 - 담화표지의 발달이 **문법화 과정**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(Waltereit 2006, Diewald 2006, 2011)
 - 담화표지의 기능과 **운율**의 관련성에 대한 여러 연구 존재(송인성 2015, Sohn & Kim 2014)

연구 목적 및 의의

다기능적 담화표지인 '글쎄'의 발달과정을 **문법화적 시각**에서 분석하고,
'글쎄'의 **운율적 실현 양상과 담화 기능**의 관련성을 살핌



2 '글씨'의 문법화

2. 담화표지의 생성과 문법화

1

담화표지가 문법화된 형태와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음

2

화용화(pragmaticalization), Cooptation현상

3

Lehmann(1995[1982])의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음

담화표지의 대표적인 기능이 **담화를 구성하는 것**이며 **담화의 구조화 표지는 문법적인 장치**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**'글쎄'의 발달과정을 문법화로 파악**하고 논의를 진행

2.1. '글쎄'의 어원 구성

(1) '글쎄'의 어원구조

그러하-르-스 이

[동사-관형표지-의존명사-장소격조사]

- 접속표지 '-르시'는 '~것이므로'라는 원인표지로 볼 수 있음(유창돈1962:19)
- '그러할시'는 '**그렇게 하는 것**'라는 의미에서 출발하여, 부사적 접속표지 '**그러하므로**'의 뜻을 가진 원인표지 접속사가 됨(Rhee2015:18)

2.1. '글쎄'의 어원 구성

- '그러할 새'에 **직시적 대용표현인 '그러하-'** 관여
 - 담화표지 발달에는 직시적 대용표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, 대용표현이 앞선 발화의 명제가 제시하는 의미를 수용하여 담화의 응집성을 높임(Rhee 2015:21-22)
- **화용론적 추론**
 - '그러한 것에'라는 단순한 (추상적) 장소표시의 의미에서 문맥적 상관성이 극대화된 **화용론적 추론에 의해 원인표지로 발달함**

2.2. '글쎄'의 발달 과정

15세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'그러나', '그러면' 등과 같이 '그러하-'에서 '하'가 생략된 형태'가 다수 등장• '글쎄'의 중간단계라 할 수 있는 '그럴시', '그럴씨'가 자료에서 596회 발견• '그러흠시 > 그럴시 > 글쎄'의 발달은 이미 중세국어에서부터 시작(예문2 참조)
19c말~ 20c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신소설 자료에서 '글세', '글세오', '글세요' 등이 매우 활발하게 쓰임• 드물게 '글쎄'의 형태도 실현(『송뢰금』1회)• (3)에서 '글세'는 대부분 발화단위 시작점, 문장 앞에 쓰이면서 화자의 다양한 스탠스를 드러냄
21c 현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(4)~(6)과 같이 '글쎄'는 다양한 발화 내 위치에 등장하고, 운율 특징과 관련하여 담화에서 다양한 기능으로 실현됨



3 '글씨'의 담화 기능

'글쎄'의 담화 기능

(7) ㄱ. 불분명한 태도

ㄴ. 강조(부정적 태도)

ㄷ. 완곡한 부정·거절

ㄹ. 동의

- ✓ 1980년대~2014년까지 제작된 TV드라마자료 총82시간(11편, 85회)가량의 영상자료와 13만7천여 어절의 텍스트 자료에서 '**글쎄**' 106개를 추출하여 분석
- ✓ '글쎄'의 운율 특성은 영상 자료의 소리를 웨이브파일로 변환하고 **음성분석 프로그램(Praat)**을 이용하여 정밀하게 분석

(1) 불분명한 태도

- '글썸'은 상대 화자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, 화자가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불분명한 태도를 드러낼 때 실현
 - 화자가 상대방의 질문에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'글썸'를 사용하여 **머뭇거리거나 주저하는 모습**을 드러내는 상황(8ㄱ)
 - 화자가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내용의 질문을 받아 앞으로 진행할 상황을 **아직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보류**하는 상황(8ㄴ)
 - 상대방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**화자가 정말 모를 때**, 불분명한 태도를 보이며 이를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상황(8ㄷ)

(2) 강조

- '글쎄'의 강조 기능은 화자가 '글쎄'를 사용하여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말을 청자에게 **강조**하기 위한 것
- 화자의 **부정적**이고 **강압적인 태도**가 함께 실현(9ㄱ,ㄴ)
- '글쎄'가 발화 초보다 **발화 말**에 실현되는 경우, 화자의 부정적인 태도가 보다 강하게 나타나기도 함(10ㄱ,ㄴ)

(3) 완곡한 부정·거절

- '글썸'은 화자가 상대방의 의견이나 요청에 대하여 **완곡하게 부정하거나 거절하는 상황**에서 실현
- 화자가 상대의 요청을 바로 거절하지 않고 '글썸'를 사용하여 완곡하게 부정하거나 거절하면서 **상대방의 체면을 손상하지 않으려는 의도**가 드러남(11ㄱ,ㄴ)

(4) 동의

- '글쎄'는 상대방이 제시한 의견이나 주장에 화자가 **동의할 때**도 사용
- '글쎄'가 동의의 기능으로 실현되는 경우, **'말이다'와 결합**하여 실현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남(12ㄱ,ㄴ)

4

이론적인

쟁점과

논의

쟁점과 논의

- 1) 생략(Ellipsis)과 화용적 추론(Pragmatic Inference)
- 2) 층위화(Layering)와 전문화(Specialization)
- 3) 운율(Prosody)의 역할

1) 생략과 화용론적 추론

- 문법화에는 다양한 **화용론적 추론**이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고, 범언어적으로 **생략** 구문은 담화에서 전략적으로 사용되어 문법화를 촉진하는 기제가 됨
- 연결표지 '-니까'에서 종결표지 '-(다)니까'로의 발달의 사례(Rhee 2012:291-292)

“사람이 그러면 못쓴다니까”

- ① 나는 [“사람이 그러면 못쓴다”-니까]('-니까'는 '때문에' '반면에' '불구하고'의 뜻)라고 들음
- ② 화자는 말을 끝내지 않음
- ③ 화자가 말을 완성했다면 [“사람이 그러면 못쓴다”-니까(불구하고)-“너는 그런 일을 했다.”임
- ④ 내가 한 행동에 항의하고, 강조하기 위해 다시 말하는 것
- ⑤ '-다니까'는 단순히 '-때문에', '반면에', '불구하고' 등의 뜻으로 쓰지 않았을 것이며, 이런 상황에서는 **주장을 강조**하는 표시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함
- ⑥ 그렇다면 내가 들은 것은 [“사람이 그러면 못쓴다”-니까] (**'-니까'는 주장 강조의 뜻**)일 것임

1) 생략과 화용론적 추론

■ '그러할싸' > '글세'의 변화

(14) 언어형태: '그러할 싸(에)' > '그러할싸' > '그럴싸' > '글세'

형태통사: 절 구성 > 부사어 > 담화표지어

의미기능: "그렇게 하는 것에" > "그러하므로" > "그래서, 그러니까" > [동의, 반박, 강조, 머뭇거림, 부정적 태도.. 등]

인과관계 표지로서의 발달

담화표지로서의 발달

1) 생략과 화용론적 추론

■ '글썸'의 담화기능으로 발달 과정의 예

(15) [머뭇거림]

A: 돈 좀 빌려줄 수 있어?

B: "글썸" ('그렇게 하는 것에' > '그런 상황인데' > '네 말을 인
다' > '대답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')

(16) [동의]

A: 미스터 김이 오늘 또 늦었어.

B: "글썸" ('그렇게 하는 것에' > '그렇기 때문에' > '그가 오늘
이 말을 하는 것이다' > '네 말이 맞아')

(17) [부정적 강조]

A: 나 나가서 놀래.

B: "글썸 안 돼." ('그런 상황에서 안 돼!' > '그런 상황이지만 안 돼!' > '네가 원하는 건 알겠지만 안 돼!' > '어쨌든 안 돼!')

➤ 담화참여자들이 담화상 발화에 대해 **지속적으로 화용적 추론**을 사용하고 있음

➤ 자주 사용되는 화용적 추론의 패턴은 고정화되어, 그 추론의 내용이 관련된 언어형태의 의미로 편입되고 있음

2) 총위화와 전문화

총위화

동일한 문법기능을 담당하는 **복수의 문법화 형태가 공존하는 것**을 가리키는 것으로, 서로 다른 시기에 문법화된 형태가 공시적으로 공존함으로써 옛 총위와 새 총위가 함께 쓰이는 것(Hopper & Traugott 2003).

전문화

전문화(specialization)란 **한 문법소가 특정 기능을 전문적으로 나타내는 현상**을 가리키는 것으로, 여러 가지의 문법표지가 총위화 현상을 보일 경우 각각의 형태들은 완전한 동의어로 대체가 가능한 상황이 되기보다는 특정한 장르나 문체 등의 특징에 따라 각 형태가 서로 다른 우위를 차지하게 됨

담화표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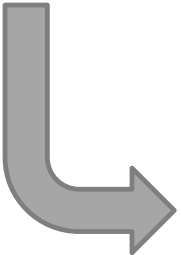
- 다양한 담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**총위화 현상**이 나타나게 될 여지가 많음
- 각 형태들이 미세한 기능적 차이를 가지고 **전문화** 될 가능성도 많음

2) 층위화와 전문화

층위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▪ [동의] - '예', '네'(긍정표지), '그럼' '아무렴'(조건표지), '그래', '그렇지'(종결형식) 등▪ [불분명한 태도] - '좀', '저', '그', '저기', '뭐', '음', '있지'(담화표지) 등▪ [강조(부정적 태도)] - '어쨌든', '하여튼', '여하튼'
전문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▪ [동의]의 경우에는 주로 다른 담화표지가 쓰이고 '글쎄'는 상대적으로 덜 쓰임▪ 가장 빈번하게 쓰이는 것으로 보이는 기능은 [불분명한 태도] 기능임▪ [강조(부정적 태도)]의 경우 '어쨌든'류와 기능적 우위를 위해 경쟁관계

3) 운율의 역할

- '글쎄'의 운율 특성과 기능에 관한 **선행 연구**에서 언급한 내용
 - 이원표(1993: 156) - [의견 불일치]의 경우 '쎄'가 길게 늘어지는 데 반해, [공감] 표현의 경우에는 '쎄'가 짧게 실현되고 '글'에 강세가 표현됨
 - 오승신(1995: 95) - 대답의 [유보, 회피]를 나타내는 '글쎄'는 주로 처음에 낮았다가 올라가는 억양 패턴을 사용하는 반면,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[찬동(공감)]을 표시하는 '글쎄'는 처음 부분을 높고 강하게 소리 내다가 낮아지는 것

- 
- 선행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근거나 분석 결과 없이 연구자의 **인상적인 분석**에 따라 논의가 이루어지고, '글쎄'의 담화 기능을 제시하면서 운율 특성은 **부분적으로 언급**됨
 - **음성분석 프로그램(Praat)**을 이용하여 정밀하게 '글쎄'의 운율 특성을 분석함
 - **다양한 운율 요소(음높이 유형, 길이, 휴지)를 고려**하여 '글쎄'의 담화 기능과 운율 특성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

'글쎄'의 각 기능에 따른 운율 특성

담화 기능	음높이 유형	평균 길이(ms)	휴지, 길이
불분명한 태도	고저(HL% 17회, 36.2%) , 고(Ha 1회, H% 15회, 34%) 저고(LH% 8회, 17%), 저(L% 5회, 10.6%) 고저고(HLH% 1회, 2.1%)	552.74 (s.d. 199.55)	24회(51.1%) 선: 967ms(1회) 후: 889ms(23회)
완곡한 부정·거절	고저(HL% 9회, 69.2%) 저(L% 3회, 23.1%) 고(H% 1회, 7.7%)	494.3 (s.d. 135.64)	8회(61.5%) 후: 769.25ms
강조(부정적 태도)	고(Ha 8회, H% 19회, 73.0%), 저고저(LHL% 5회, 13.5%) 고저(HL% 4회, 10.8%), 저(L% 1회, 2.7%)	372.08 (s.d. 204.25)	3회(8.1%) 후: 485.66ms
동의	고(H 4회, Ha 3회, 77.8%) 고저(HL% 1회, 11.1%) 저(L% 1회, 11.1%)	253.77 (s.d. 73.27)	1회(11.1%) 후: 290ms

'글쎄'의 각 기능에 따른 운율 특성(음높이 유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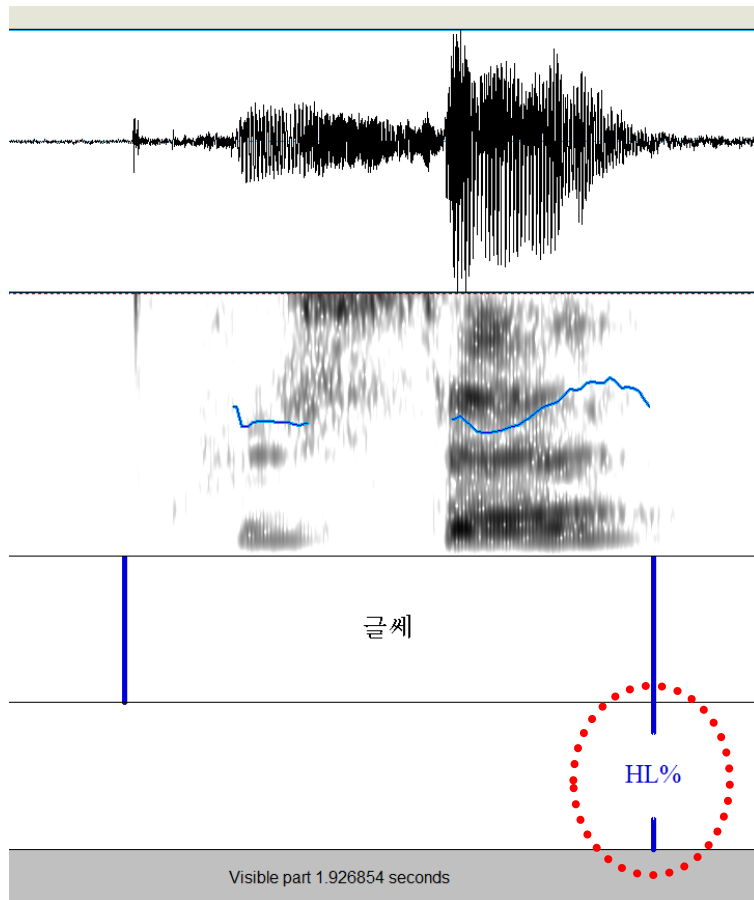
담화 기능	음높이 유형
불분명한 태도	고저(HL% 17회, 36.2%) , 고(Ha 1회, H% 15회, 34%) 저고(LH% 8회, 17%), 저(L% 5회, 10.6%) 고저고(HLH% 1회, 2.1%)
완곡한 부정·거절	고저(HL% 9회, 69.2%) 저(L% 3회, 23.1%) 고(H% 1회, 7.7%)
강조(부정적 태도)	고(Ha 8회, H% 19회, 73.0%), 저고저(LHL% 5회, 13.5%) 고저(HL% 4회, 10.8%), 저(L% 1회, 2.7%)
동의	고(H 4회, Ha 3회, 77.8%) 고저(HL% 1회, 11.1%) 저(L% 1회, 11.1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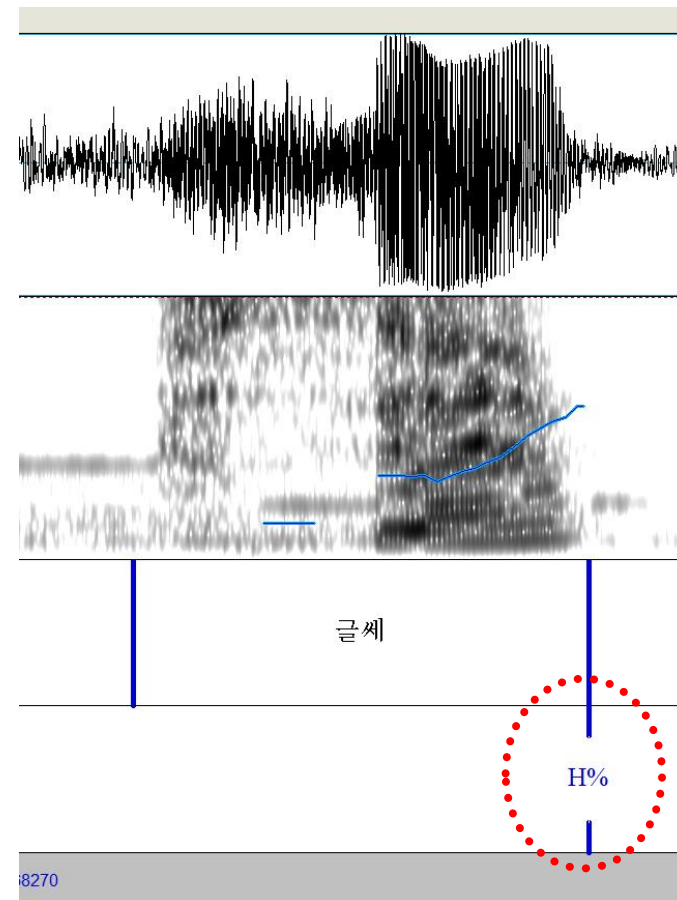
[불분명한 태도]에서
각 음조에 따라
화자의 다양한 태도와
상태가 실현

'글쎄'의 각 기능에 따른 운율 특성(음높이 유형)

<그림 2>



<그림 3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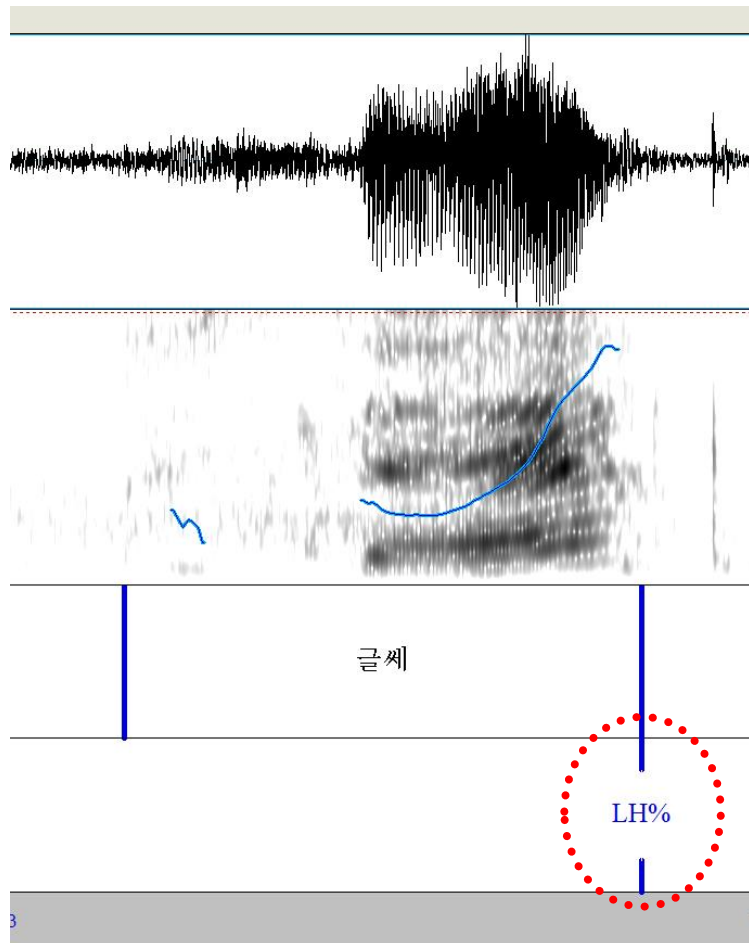


일반적인
주저함,
머뭇거림

화자가
미확정적, 정말
모를 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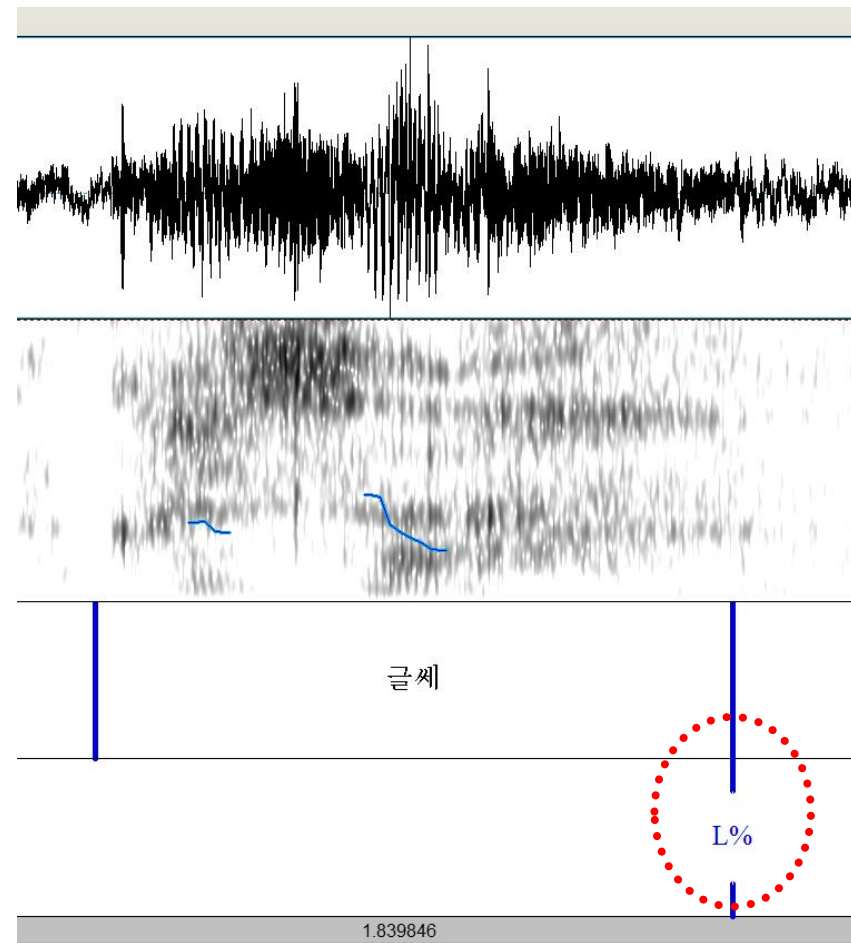
'글쎄'의 각 기능에 따른 운율 특성(음높이 유형)

<그림 4>



화자가
밝고
긍정적인
상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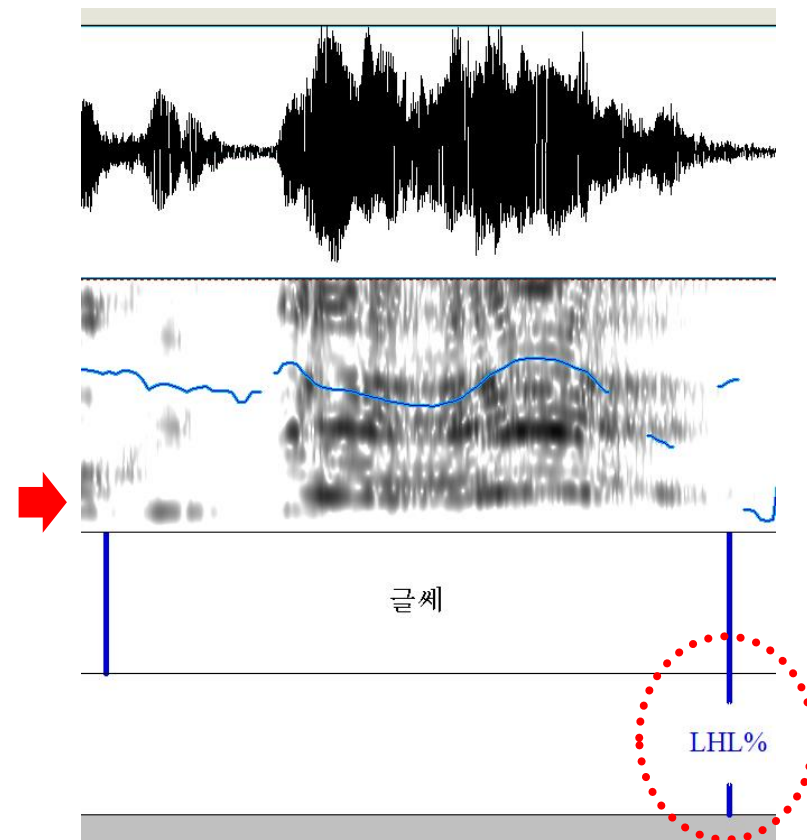
<그림 5>



화자가
막막하고
답답한 상태

'글쎄'의 각 기능에 따른 운율 특성(음높이 유형)

담화 기능	음높이 유형
불분명한 태도	고저(HL% 17회, 52.3%), 저고(LH% 8회, 24.2%), 고저고(HLH% 7회, 21.1%) 주로 발화 말에서 복합 성조로 실현되어 화자의 부정적 태도가 보다 잘 드러남
완곡한 부정·거절	고저(HL% 9회, 69.2%) 저(L% 3회, 23.1%) 고(H% 1회, 7.7%)
강조(부정적 태도)	고(Ha 8회, H% 19회, 73.0%), 저고저(LHL% 5회, 13.5%) 고저(HL% 4회, 10.8%), 저(L% 1회, 2.7%)
동의	고(H 4회, Ha 3회, 77.8%) 고저(HL% 1회, 11.1%) 저(L% 1회, 11.1%)



'글쎄'의 각 기능에 따른 운율 특성(길이)

담화 기능	평균 길이(ms)
불분명한 태도	552.74 (s.d. 199.55)
완곡한 부정·거절	494.3 (s.d. 135.64)
강조(부정적 태도)	372.08 (s.d. 204.25)
동의	253.77 (s.d. 73.27)

- '글쎄'를 **길게 실현**

- 머뭇거리거나 주저하는 모습 표현
- 완곡하게 거절하거나 부정하기도 함

- '글쎄'를 **짧게 실현**

- 상대 의견에 동의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림

'글쎄'의 각 기능에 따른 운율 특성(휴지, 길이)

담화 기능	휴지, 길이
불분명한 태도	24회(51.1%) 선: 967ms(1회) 후: 889ms(23회)
완곡한 부정·거절	8회(61.5%) 후: 769.25ms
강조(부정적 태도)	 3회(8.1%) 후: 485.66ms
동의	1회(11.1%) 후: 290ms

- 상대적으로 **긴 휴지가 고빈도 발생**

- 상대의 질문이나 요청에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림
- 상대에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

- 상대적으로 **짧은 휴지가 저빈도 발생**

- '글쎄' 뒤에 휴지 없이 말을 지속하며 즉각적으로 발화를 진행



요약 및 의의

- '글쎄'는 어원적으로 '그러할시'부터 **문법화의 과정**을 거쳐 형태와 의미기능의 변화를 통해 현재 '글쎄'와 같은 언어 형태와 여러 담화 기능을 지니고 실현되는 것으로 파악
- '글쎄'의 주된 담화 기능은 [불분명한 태도], [완곡한 부정·거절], [강조], [동의]로, 이러한 '글쎄'의 기능은 이에 실현되는 **'음높이 유형', '길이', '휴지' 등의 운율 요소**와 관련성을 지니고 실현되는 것을 분석함
- '글쎄'의 발달과정의 분석을 통해 **언어 변화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이해**를 넓히고 '글쎄'의 운율 특성을 분석하여 '글쎄'의 **담화 기능과 운율의 관련성을 정밀하게 파악**하여, 담화표지에 대한 연구범위 확장 기대



감사합니다.



송인성, 이성하